

SPORTS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트리플에스 멤버 린·지연

트리플에스·몬스타엑스

KIA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KIA타이거즈가 오는 23일과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와의 홈경기에 연예인을 초청해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23일은 걸그룹 트리플에스의 멤버 지연과 린이 각각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지연과 린은 “KIA타이거즈의 시구를 하게 돼 큰 영광이다”며 “긴장이 되긴 하지만 뜻깊은 경험일 것 같고, 더운 날씨에 선수들 모두가 부상 없이 경기에서 승리하길 기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4일은 몬스타엑스의 멤버 형원이 시구자로 마운드로 오른다.

광주 출신으로 타이거즈 팬팬인 형원은 “고향에서 시구를 하게 돼 정말 기쁘고 영광이다. 시구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구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선수단 모두가 부상 없이 가을야구에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MLS 첫 선발+도움’ 손흥민

라운드 베스트11…메시와 나란히

손흥민(33)이 로스앤젤레스(LA) FC 유니폼을 입고 치른 두 경기만에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라운드 베스트11(팀 오브 더 매치 데이)에 뽑혔다.

손흥민은 MLS가 19일(한국시간) 발표한 2025 정규리그 29라운드의 ‘팀 오브 더 매치 데이’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꿰찼다.

MLS는 “리그 이적료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MLS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LAFC의 원정 승리를 이끌었다”면서 “한국의 아이콘 손흥민은 역동적인 압박으로 첫 골을 만들어낸 후 역습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며 팀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고 손흥민의 29라운드 활약상을 소개했다.

손흥민은 17일 열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폴다임을 뒤흔들며 LAFC에 2-0 승리를 안겼다.

후반 6분 강한 전방 압박으로 마르코 델가도의 선제 결승 골에 발판을 놓은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는 육상부리지 않고 마티의 슈아니에르에게 패스해 추가 골을 돕는 등 팀 득점에 모두 관여했다.

지난 10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떠나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650만달러(약 368억원)에 이달 7일 LAFC에 등지를 뜬 손흥민이 이적 후 2경기 만에 올린 첫 공격포인트였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의 최우수선수(POM·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됐다.

MLS는 29라운드 베스트11을 3-4-3 대형으로 맞춰 뽑았다.

손흥민이 마르쿠스 잉바르트센(샌디에이고), 하파엘 나바로(콜로라도)와 스트리톱 한 자리씩을 차지했다.

미드필드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를 비롯해 파벨 부차, 에반테르(이상 신시내티), 필리프 상케르나겔(사카고)가 이름을 올렸다.

메시는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에서 회복해 LA 갤럭시전에 후반 교체 투입된 뒤 1골 1도움을 올리며 마이애미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베스트11의 스트리백은 조르디 알바(마이애미), 팀 린(샬럿), 딜런 날리스(뉴욕)로 구성됐고 골키퍼는 크리스티안 카를루나(샬럿)였다. 연합뉴스

광주FC,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 ‘정조준’



오늘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부천과 4강 1차전
상대전적 2승 1패 우위…헤이스 등 공격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첫 코리아컵 첫 결승 진출을 위한 기선 제압에 나선다.

광주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FC1995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경기를 갖는다.

앞서 광주는 지난달 2일 홈에서 열린 코리아컵 8강전에서 후반 30분 터진 조성권의 헤더 득점에 힘입어 강력한 우승 후보 울산HDFC를 꺾고 준결승행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광주는 지난해 울산에 패하며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아픔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우승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동기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광주는 2024-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참가하며 큰 무대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아시아 무대를 지향점으로 두고 매 시즌 대회 참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코리아컵은 광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약 부천을 누르고 결승 진출 및 우승이라는 염원을 이룬다면 즉시 ACL2 티켓을 확보해 놓을 수 있다. 광주 팬들이 염원하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리그 성적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번 코리아컵 4강전은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승점 합계에서 다득점 순으로 승자를 가린다. 원정 다득점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동률 시 연장전과 승부차기로 이어진다.

광주는 이정호 감독의 지휘 아래 창단 후 첫 결승 진출을 노린다. 최근 K리그1에서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이었지만 17일 홈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꺾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이 고무적이다.

이영민 감독이 이끄는 이번 경기 상대 부천은 올 시즌 K리그2에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뽐내고 있는 팀이다. 이번 대회 K리그2 9월의 준결승전진출 팀이기도 하다.

특히 8강에서 김포FC를 3-1로 제압하며 2016년 이후 9년 만에 준결승 무대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K리그1의 제주 SK와 김천상무를 연이어 꺾으며 ‘하위리그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K리그2 팀의 준결승 진출은 2021년 우승을 차지했던 전남 드래곤즈 이후 처음이다. 부천은 현재 K리그2에서 4위에 올라 승격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을 코리아컵에서도 이어가고자 한다.

양 팀의 코리아컵 통산 맞대결 전적은 광주가 2승 1패(2024 코리아컵 16강전 광주 3-2 승, 2022 FA컵 16강전 부천 2-1 승, 2014 FA컵 32강전 광주 1-0 승)로 앞서 있다.

부천전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의 현재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다. 특히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는 ‘주포’ 헤이스가 멀티골을 쏘아 올렸다. 광주는 물론인 컨디션에 자랑하는 헤이스를 앞세워 홈에서 펼쳐지는 1차전서 확실한 기선 제압에 성공 하겠다 각오다.

광주가 부천과의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코리아컵 결승 진출 새역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아사니, 광주 떠난다…이란과 이적료 합의 완료

100만달러에 서류 최종 사인…선수단과 인사 마쳐

프로축구 광주FC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아사니가 이란으로 떠난다.

광주FC 관계자는 19일 “아사니의 이란 에스테그라 이적 관련 서류에 최종 사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알려진 이적료는 100만달러(약 14억원) 수준.

지난 2023시즌 광주에 합류한 아사니는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다. 올 시즌에는 22경기 8골 2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는 10경기 9골 1도움이라는 놀라운 활약으로 광주의 ACLE 8강 진출 새역사를 이끌기도 했다.

당초 아사니의 계약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으나, 종료 약 5개월을 앞두고 아사니가 이란 에스테그라 구단과 계약을 맺었다. 현 소속 구단과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자유롭게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는 ‘보스만 규정’을 이용한 것.

하지만 소속팀 광주와 사전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스테그랄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아사니의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아사니는 몸 컨디션을 이후로 팀 훈련에 불참하고 지난 25라운드 포항스틸러스전에는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등 태업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아사니 몸값을 놓고 에스테그라와 줄다리기를 하던 광주는 100만달러에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에스테그라를 최초 40만달러를 제안했으나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광주는 80만달러를 제시했다.

이에 에스테그라가 60만달러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내밀었고, 현지 회계 처리의 늦은 신용도를 우려



한 광주는 다시 100만달러 일시불을 요구했다. 광주는 아사니를 팔지 않더라도 핵심 전력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코리아컵 타이틀을 노리는 한편

“광주 명예 드높인 선수단,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길”

시체육회, 하계U대회 선수단 포상
총 9개 메달…노승석 코치 등 격려

광주시체육회가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 선수단에 포상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노승석 육상지도자(광주시청) 및 종목별 선수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승석 지도자를 비롯해 신대철(유도), 고병진(다이빙) 지도자와 이재성(육상), 김민주(유도), 김지욱·최강인·손성환·김승현(이상 다이빙)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육상 이재성은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서민준·나미다조엘진·김정운과 한 조를 이뤄 38초50으로 한국 육상 계주 사상 첫 U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U대회 육상 금메달은 지난 200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U대회 김덕현 이후 16년 만이다. 또 200m에서는 동메달

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지난 1985년 일본 고베 U대회 장재근 이후 40년 만의 값진 메달이다.

다이빙 김지욱은 남자 10m 경기와 혼성팀·싱크로나이즈드 3m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해 동메달 3개를 획득했고, 최강인·손성환과 함께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했다. 다이빙 김승현도 여자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유도 김민주는 78kg급과 혼성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내 광주 선수단에 메달을 보냈다.

지난달 독일 라인루르에서 개최된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한 광주소속 선수단은 금 1·은 1·동 7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선수단이 4위(총 57개, 금 21·은 9·동 27)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갑수 회장은 “광주소속 국가대표로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단에 감사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 축하한다”며 “메달 색깔은 중요치 않다. 대학 시절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다른 방법으로 재무 개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광주는 지난 6월 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로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영입 금지는 재무 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27년까지 집행 유예됐다.

이적시장 마감일인 20일을 이틀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에스테그라를 결국 광주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제이적확인서(ITT)가 발급되고서 일주일 안에 이적료를 송금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0만달러의 위약금을 배상하는 조건도 동의했다.

광주 관계자는 “현재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적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감독님도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구단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적하는 걸로 이야기를 마쳤다”면서 “최근 대전전이 사실상 고별전이었다. 20일 코리아컵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선수단과 작별 인사를 마친 아사니는 곧 이란으로 이동해 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양시 청소년축구단

제11회 피스컵 국제대회 우승

광양시는 광양시 청소년 축구대표팀(U-17)이 중국 선양에서 열린 제11회 피스컵 국제 청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라오닝성 선양 피스컵 세계축구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뉴질랜드, 일본, 태국, 몽골, 러시아 등 10개국 300여개 팀 5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광양시는 창단 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팀인 K리그 전남드래곤즈 산하 광양제철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24명의 선수와 인솔 공무원, 명예 통역관, 의료진 등 총 29명으로 축구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 청소년축구대표팀은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강호들을 만나 예선에서 13대 0, 3대 1, 5대 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결승전에서 중국 산둥성 자란시 대표팀과 자웅을 겨룬 결과 2대 0으로 이겨 우승컵을 거머 쥐었다.

2위와 3위는 중국 지난시축구팀, 3위는 베이징 휘원토티가 각각 차지했다.

현지 언론들은 대회 기간 중 우승을 차지한 광양시 청소년대표팀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청소년 축구의 경쟁력을 집중 부각 했으며 기업도시인 광양시도 소개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